

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둔화와 정부의 대응

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(ymkim@kiep.go.kr, Tel: 3460-1075)

차 례 ●●●

1.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
2.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
3. 향후 전망

주요 내용 ●●●

- ▶ 최근 인도네시아는 △ 경상수지 적자 지속 △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△ 물가 급상승 등에 의해,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5.8%의 저조한 기록을 보임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13년 경제성장률 6.8% 달성이 어려워짐.
 - 천연자원에 집중된 수출품목과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 기인하여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가 악화됨.
 -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자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주가 및 루피아 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.
 - 2013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8.6%를 기록하여 2009년에 9.2%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▶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, 외환거래 관련 규제완화, 선진 국가와 금융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함.
 - 2013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으로 인상하고 대출기관의 예대율을 제한하며, 시중은행의 루피아화 유동성 비율을 높이도록 함.
 - 한편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환예금의 가입기한을 연장하고 수출세 부과대 상품품을 축소하며, 외환스왑 적용범위를 확대함.
 - 이외에도 일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체제 안정화 포럼(FKSSK) 개최를 통해 민관협력을 도모할 예정임.
- ▶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, 사치품 수입의 판매세 조정, 수출기업 세제혜택 확대, 투자제한 분야 리스트 개정, 노동집약적 산업에 우대세제 적용 등의 정책을 발표함.
- ▶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제 위기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나, 최저임금 인상, 루피아 가치 하락, 자본재 수입 대체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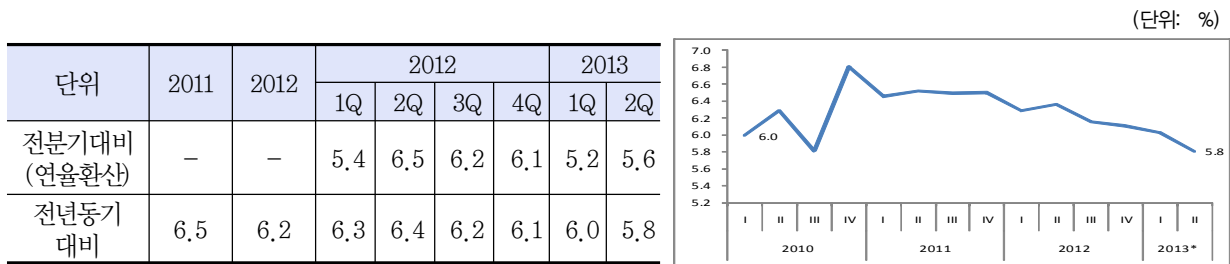
1.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

가. 경제성장의 하락 추세

■ 인도네시아의 2013년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5.8%를 기록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2013년 경제성장률 6.8% 달성이 어려워짐(표 1 참고).

- 2013년 1/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6.0%를 기록하자,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6.3%로 수정함.
- 그러나 2013년 2/4분기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면서 2013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6.1%로 하향 조정됨.
 - 3년 연속 6% 성장세를 보였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13년 2/4분기에 5%대로 하락하여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.

표 1.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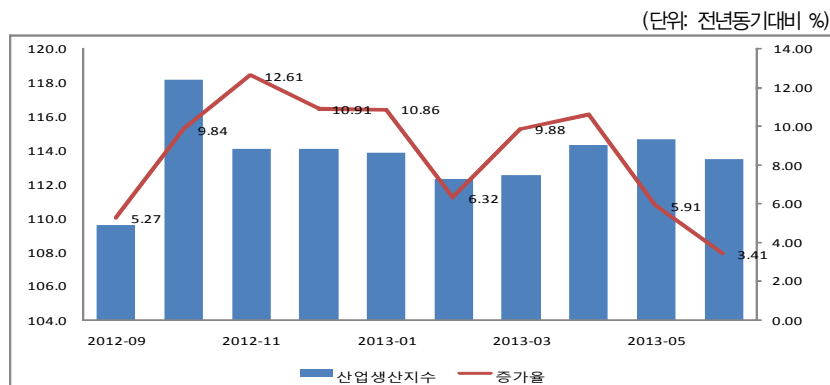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(BPS).

- 2013년 9월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.2%에서 5.9%로 추가 하향 조정함.

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2013년 산업생산 성장률도 하향세를 나타냄.

그림 1. 최근 인도네시아 산업생산 추이
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정리.

- 2013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이 3.4%로, 고점대비 9.2%포인트 하락함(그림 1 참고).
- 특히 섬유부문 -12.9%, 화학제품 -10.7%, 기계류 -22.6%로 생산부진이 심각함(표 2 참고).

표 2. 인도네시아 업종별 산업생산 성장률(2013년 6월 기준)

(단위: 전년동기대비 %)

전체	섬유	화학제품	비금속광물	전자기기	기계류
3.4	-12.9	-10.7	4.8	18.1	-2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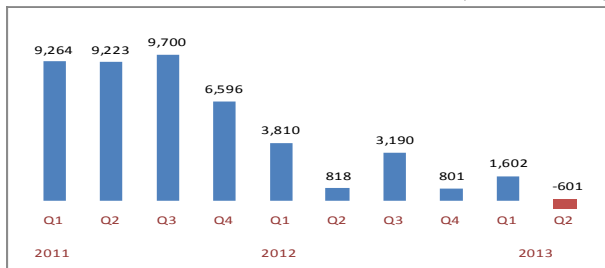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 database.

나. 경상수지의 적자 지속

- 인도네시아는 2013년 2/4분기에 약 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(그림 2 참고),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됨(그림 3 참고).
- 2011년 4/4분기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적자가 2013년 2/4분기에는 약 98억 달러를 기록하며 더욱 악화됨.

그림 2.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무역수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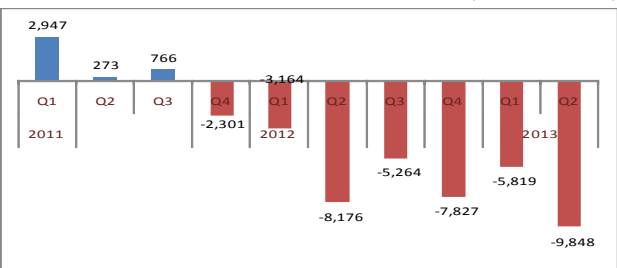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그림 3.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경상수지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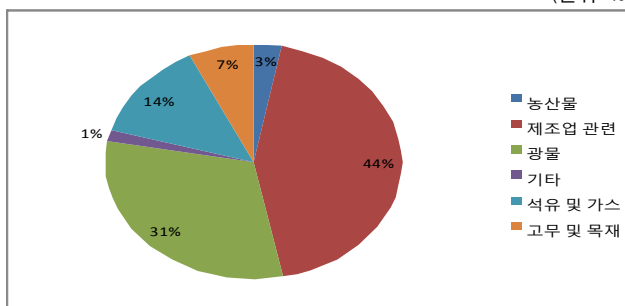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- 이와 같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△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고(그림 4 참고) △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(그림 5 참고)에서 기인함.

그림 4.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비중
(2013년 2/4분기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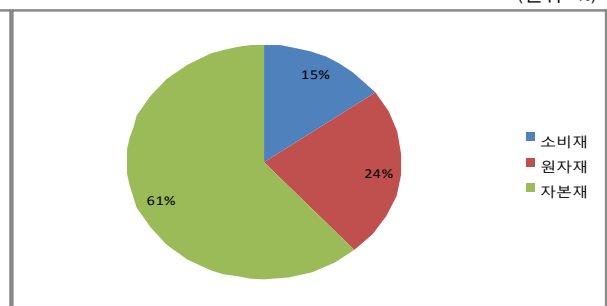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그림 5.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비중
(2013년 2/4분기 기준)

(단위: %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- 인도네시아 수출의 약 52%가 광물, 원유, 고무 및 목재 등 천연자원이므로, 자원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액이 감소함.
- 전체 수입 중 약 61%가 기계류, 부품 등 수입 대체가 어려운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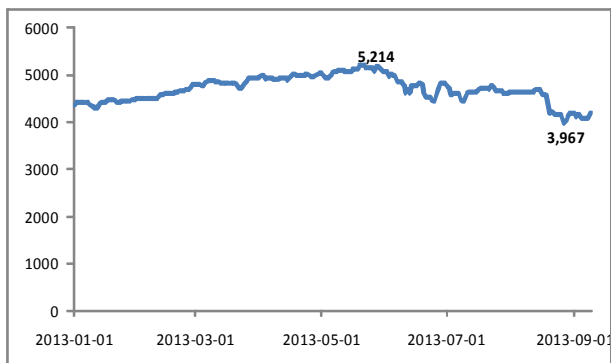
다.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

■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신흥국 전반에 걸쳐 자금이탈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,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.

- 2013년 5월 20일 5,2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자카르타 종합지수(JCI)는 버냉키 발언¹⁾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8월 27일에 3,967로 고점대비 약 20% 하락함(그림 6 참고).
- 또한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도 9월 5일 11,649 IDR/USD로 연초대비 약 20% 상승함(그림 7 참고).

그림 6. 인도네시아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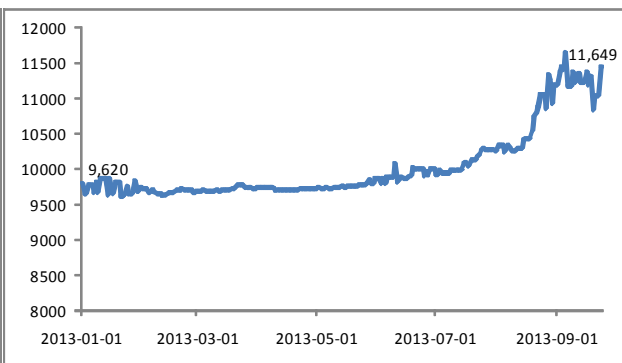
(단위: JCI)



자료: Bloomberg.

그림 7.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추이

(단위: IDR/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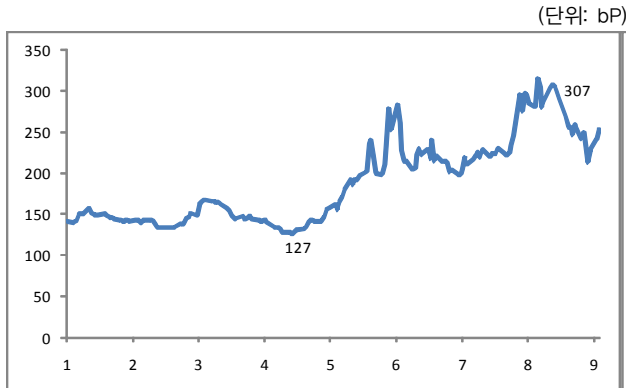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.

- 2013년 5월말 127bp였던 인도네시아 CDS 프리미엄은 9월 3일에 307bp까지 급등하여 5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함(그림 8 참고).
- 또한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013년 6월에 처음으로 1,000억 달러 선이 붕괴하면서 7월에는 927억 달러까지 감소함(그림 9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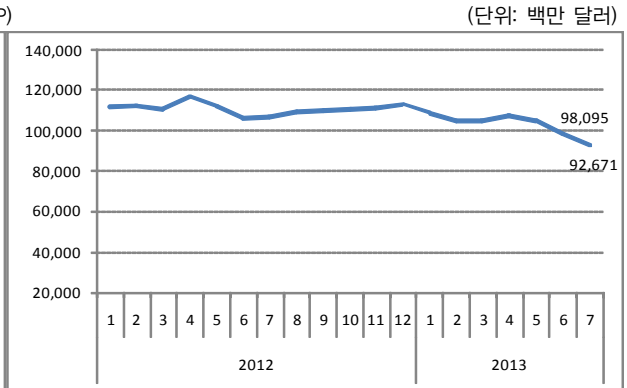
1) 2013년 6월 19일(현지 시각),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의 벤 버냉키 의장이 그동안의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할 방침을 밝히자 일부 신흥국 증시가 크게 하락함.

그림 8. 인도네시아의 CDS 프리미엄 추이
(2013년 1월~9월)



자료: Bloomberg.

그림 9.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 추이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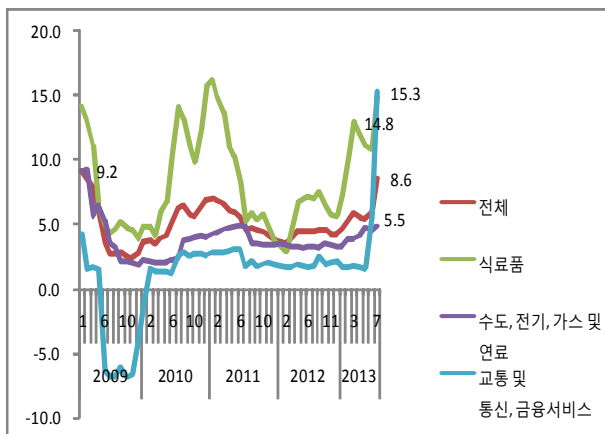
라. 물가상승과 소비침체

■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 보조금 감축, 루피아 가치 하락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상승함(그림 10 참고).

- 2013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8.6%로, 2009년의 9.2%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특히 수송 및 통신, 금융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15.3%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, 식료품, 전기 및 연료부문의 물가상승률도 각각 14.8%, 5.5%를 기록함.
- 수송 및 통신 부문의 증가는 지난 6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연료보조금 감축안이 발효되면서 연료가격이 인상한 것에 따름.

그림 10.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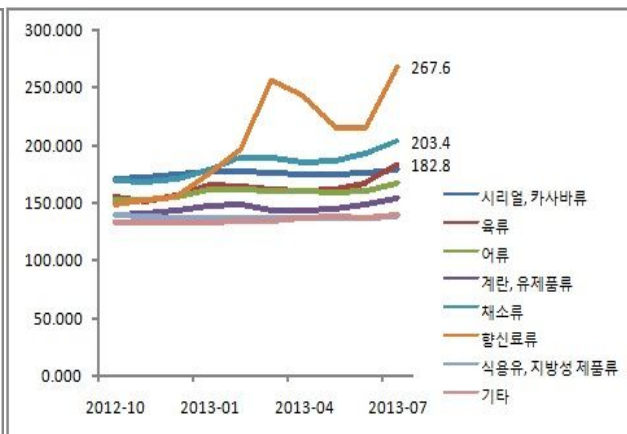
(단위: 전년동기대비 %)



자료: 인도네시아 통계청(BPS).

그림 11. 최근 인도네시아 식료품 CPI 추이

(단위: 2007=100)



자료: CEIC.

- 또한 매년 개최되는 종교행사인 라마단과 이돌피트리²⁾에 따라 전반적으로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향신료류의 CPI가 267.6(2007=100)으로 급증함(그림 11 참고).

○ 이슬람력으로 9월³⁾인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다른 기간에 비해 식료품을 많이 소비함.

■ 인플레이션 급상승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내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대두됨.

- 2013년 7월,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소비의향지수(CCI)가 108.4로 전월대비 8.7% 하락함.⁴⁾

- 연료비 44% 상승⁵⁾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도 30% 이상 인상되었으며, 이 인상률이 인도네시아 평균임금 인상률인 20%를 상회하여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됨.⁶⁾

○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폭(Depok)에 거주하고 자카르타(Jakarta)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왕복요금이 월급의 15%를 차지한다고 함.⁷⁾

2.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

가. 통화정책

■ 물가인상과 환율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채택함.

-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정책금리를 5.75%로 유지하였으나, 2013년 6월에 6.0%, 7월에 6.5%, 8월에 7.0%, 9월에 7.25%까지 빠르게 인상하여 급격한 물가상승 추세에 대응함.

- 또한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기관의 예대율(loan-to-deposit ratio)을 종전에 100%에서 92%로 제한함.⁸⁾

-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들의 루피아화 유동성 비율을 2.5%에서 4%로 증가하도록 함.⁹⁾

2) 말레이시아에서 ‘하리라이아(Hari Raya)’, 인도네시아에서 ‘르바란(Lebaran)’이라고도 불리는 ‘이돌피트리(Idul Fitri)’는 라마단 기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종교행사로, 인구의 90%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대 명절로 여겨지며,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민간소비가 증가함.

3) 2013년 양력으로는 7월 9일~8월 9일임.

4) Bank of Indonesia(2013), “Consumer Survey”, <http://www.bi.go.id>.

5) 2013년 인도네시아 추경예산안.

6) “Jakarta public transportation fares to rise”, *Jakartapost*. (2013. 6. 19)

7) 상동.

8) Global Insihgt(2013), “Bank Indonesia leaves interest rates on hold, adjusts macroprudential tools.” (August 19)

9) 상동.

-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시킴.¹⁰⁾
 - 먼저 종전에 7일~30일의 외화예금 가입기간을 1일~12개월까지 연장하여 환율상승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함.
 - 또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함.
 - 이외에도 파생거래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거래를 취급하는 은행들도 외환스왑(foreign exchange swap)을 적용하도록 함.
-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일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였으며, 인도네시아 금융위원회(OJK)와 금융체제 안정화 포럼(FKSSK)을 개최함.
 -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일본은행과 약 120억 달러의 통화스왑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, 이는 2013년 8월 31일부터 발효됨.
 - 이어서 최근에 중국, 한국, 아랍에미리트와도 통화스왑을 체결함.
 - 금융체제 안정화 포럼은 2013년 1월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(OJK: Otoritas Jasa Keuangan)의 주도에 따라 재무부, 중앙은행과 민간금융기업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음.
 - 금융체제 안정화 포럼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기관리 프로토콜(CMP: Crisis Management Protocol)을 강화하여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임.¹¹⁾

나. 재정정책

-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13년 추경예산안과 8월 16일에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함.
 - 인도네시아 재정적자가 GDP 대비 3%를 초과하면서 2013년 6월 17일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, 이를 통해 연료 보조금을 감축하고 재정적자 수준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함.
 - 2014년 예산안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¹²⁾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낙후된 인프라와 교육개선 부문을 중점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임.
 - 인재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등교육만 해당되었던 의무교육 과정을 2014년부터 중등교육까지 포함하는 안을 발표함.

10) 인도네시아 중앙은행, http://www.bi.go.id/web/en/Ruang+Media/Siaran+Pers/SP_152513_DKom.htm. (검색일: 2013. 9. 9)

11) 강대창·김유미(2013), 「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」,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3-04호, 대외경제정책연구원.

12) Global Insight(2013), "Indonesia: Budget 2014: Indonesia to support growth through more targeted spending." (August. 19)

- 인도네시아의 노동가능 인구가 매년 1.4%씩 증가하기 때문에¹³⁾ 젊은 층에 대한 교육이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.
- 2013년 WEF의 평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이 144개국 중 92위¹⁴⁾로, 인프라 개발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필수 과제임.

■ 2013년 8월 23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경상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△ 수입재 사치품 판매세 조정 △ 수출기업 세제혜택 확대 △ 노동집약적 산업에 우대세제 적용 등을 발표함.¹⁵⁾

-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급 외제차 등의 수입재 사치품에 75%까지 판매세를 인상하고 정유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을 권장함.
-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광물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, 수출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함.

■ 2013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전의 경제조정부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과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공개하면서, 경제성장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냄.

-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세구역 내 면세대상을 기존에 생산품의 75%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50%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까지 확대함.
- 또한 섬유,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25%의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.

3. 향후 전망

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제 위기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나 성장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(그림 12 참고).

-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, 정제시설을 단시일 내에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유 수입의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물가인상에 따라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, 기존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서 다시 인상할 경우 대량해고와 소비침체가 발생할 수 있음.
 - 2013년 초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4% 인상시킨 바 있음.¹⁶⁾

13) 상동.

14) World Economic Forum(2013), *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-2013*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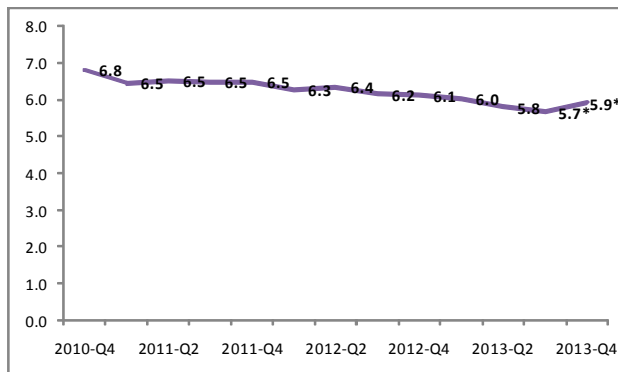
15) 이외에도 투자 유인을 위해 투자제한 분야 리스트(Negative List) 개정을 실시하도록 함.

16) "A robust wage campaign in 2013", *Jakartapost*. 2013. 6. 4

-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증가로 경제 위기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,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3/4분기 이후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함.
- o 2013년 2/4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FDI 유치액은 42억 달러로, 전년동기대비 약 27% 증가함(그림 13 참고).

그림 12.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

단위: (전년동기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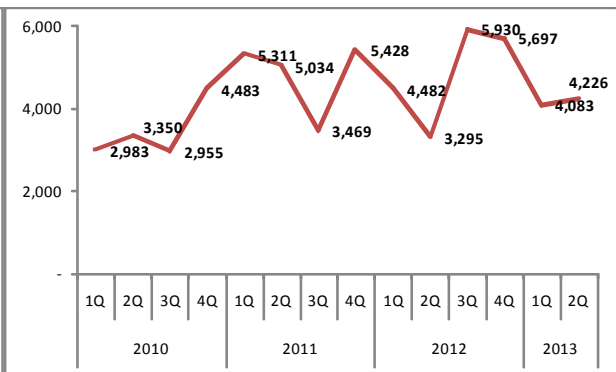


주: * 전망치.

자료: Global Insight.

그림 13. 인도네시아의 분기별 FDI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(BI).

■ 한편 보세구역 내 면세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 우대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현지시장에 진출한 가공수출형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.

- 수출세 부과대상 기준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섬유·봉제 기업들은 환율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.
 - o 현재 인도네시아에 1,000개 사 정도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섬유, 봉제부분이 3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.¹⁷⁾
- 또한 2010년부터 높아진 비관세 장벽이¹⁸⁾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정책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지에 진출한 가공수출형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됨.
- 반면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업은 마케팅능력 제고, 시장 다각화, 개발 투자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. KIEP

17)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, <http://www.kotra.or.kr/KBC/jakarta/KTMIUI010M.html>.

18) 김유미(2012), 「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」, KIEP지역경제포커스 제 12-27호, 대외경제정책연구원.